기획예산처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16.(월)

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6.11.16. 서울경제는 「초과세수로 지방재정 보강…교육계정 60조 KIC 위탁 검토」 기사에서,

○ “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을 지출 일정에 맞춰 단기자금은 기존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고 중장기 자금은 외부위탁운용관리(OCIO)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맡길 방침이다. 이 같은 운용 체계는 내년 하반기쯤 갖춰질 전망이다.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교육·인재계정에 쌓이는 재원을 한국투자공사(KIC)에 맡기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. 당장 교육사업비로 쓸 몫을 떼어두고 한동안 굴릴 수 있는 자금을 해외에 분산 투자하는 구상으로 풀이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,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.

○ 구체적인 자금운용방식은 미래대응기금 근거법인 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자산운용지침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.

□ 기사에서 언급된 연기금투자풀, KIC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재정성과국 자산운용준비단	책임자	단 장	정남희 (044-214-3256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준 (stein99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